

少陰人 病證 진단 알고리즘 개발 연구

신승원 · 이의주 · 고병희 · 이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lgorithm of Soeumin Symptomology

Seung-Won Shin, Eui-ju Lee, Byung-hee Koh, Jun-Hee Le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the algorithm, which can help clinicians diagnose Soeumin's symptomology, based on the indexes such as dry mouth, water drinking, sweat, urine, appetite, digestion, and stool, etc.

2. Methods

This research analyzes the items of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to reveal the inevitable and sequential indexes of Soeumin's symptomology diagnosis, in order of exterior-interior pattern differentiation, favorable-unfavorable pattern differentiation, and mild-severe-dangerous-urgent pattern differentiation.

3. Results and Conclusions

- 1st step: Soeumin's exterior pattern and interior pattern are differentiated in terms of heat and cold, respectively. Stool and digestion are used to confirm the difference.
- 2nd step: The existence of sweat is used to find out that an exterior pattern is with or without favor, while the indexes of stool, dry mouth, and generalized pain are used to identify an interior pattern with or without favor.
- 3rd step: The favorably exterior-heat pattern can be either mild or severe by the indexes of cold-heat, stool, tidal fever, and manic raving, panting and straight looking, while the unfavorably exterior-heat pattern can be either dangerous or urgent by the ones of cold-heat, stool, and urine. And, the favorably interior-cold pattern can be either mild or severe by the indexes of stuffiness and fullness, jaundice, and edema, while the unfavorably interior-cold pattern can be either mild or severe by the ones of vexation level.

Key Words: Soeumin's symptomology, Diagnosis, Algorithm

• 접수일 2010년 11월 03일; 심사일 2010년 11월 03일;
승인일 2010년 11월 22일
• 교신저자 : 이준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sljh@daum.net

*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학년도 우수학술장학금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緒 論

少陰人 病證의 진단과 처방을 위한 기준 설정은 『東醫壽世保元』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少陰人 환자로부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고, 확인이 필요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조문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少陰人 病證 진단과 관련한 이전 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 등은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의 病證, 약재, 처방 분석을 통한 少陰人 表病의 병리와 치법의 차이를 규명한 바 있으며¹, 이 등은 少陰人 과 소양인의 表裏病을 陰陽升降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².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학계에 보고되어 왔고, 또 현재도 보고되고 있는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 유용한 진단 과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少陰人의 病證 진단을 위한 최적의 진단 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임상에서의 지표 확인 순서를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문헌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에서 발행한 2010년도 『四象體質科 臨床便覽(부제: 四象醫學 文獻集)』³을 기준으로 하였다.

1.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이하 『辛丑本』)으로 약칭함)의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이하 「腎受熱表熱病論」)으로 약칭함),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이하 「胃受寒裏寒病論」)으로 약칭함), 「少陰人 泛論」(이하 「泛論」)으로 약칭함)을 중심으로 少陰人 病證의 증상과 병리를 제시하고 있는 조문을 찾아 분석하였다.
2. 『辛丑本』으로 분석이 충분치 않은 경우,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하 『甲午本』)으로 약칭함),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이하 『草本卷』)으로 약칭함), 『東醫四象新編』(이하 『新編』)으로 약칭

함)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조문을 참고하였다.

3. 『四象體質科 臨床便覽』에 따르면, 체질 病證의 진단 과정이 素證과 現證의 구별과 함께, 表裏, 順逆, 輕重險危 辨證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⁴. 이에 본고에서도 表裏, 順逆, 輕重險危 辨證의 순서로 少陰人 病證 진단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각 辨證 단계의 대강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 Diagnosis Step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tep 1 表裏 辨證	Step 2 順逆 辨證	Step 3 輕重險危 辨證
表	順 ----- 逆	輕 重 險 危
裏	順 ----- 逆	輕 重 險 危

III. 研究結果

1. 表裏 辨證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재편된¹⁾ 太陽病과 陽明病은 發熱의 形證으로²⁾, 胃受寒裏寒病의 太陰證과 少陰證은 自利의 形證으로 요약하였다³⁾. 한편, 『甲午本』에서는 少陰人의 表病은 身熱이 주요 증상이 되며, 裏病은 腹寒이 주요 증상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 더불어, 少陰人의 表病을 설명하는 중에 大便秘燥는 胃實이라고 규정하며⁵⁾, 自利 증상과 구별하고자 하였다.

- 1)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6 (전략) 陽證 自汗不出 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鬱狂證也 自汗出 而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亡陽證也 (후략)
- 2) 『辛丑本』 「少陰人 泛論」, 8-1 (전략) 太陽陽明之發熱形證一也 (후략)
- 3) 『辛丑本』 「少陰人 泛論」, 8-1 (전략)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 (후략)
- 4)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1-4 少陰人表病 身熱爲主證也 (중략) 少陰人裏病 腹寒爲主證也 (후략)
- 5)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20 (전략) 大便秘燥則 胃實也 (후략)

自利 증상을 논증하는 과정에서는 첫째, 장중경의 문장을 인용하여 병이 陰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下法을 취하면 心下痞가 생기는데⁶⁾, 이는 胃弱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고⁷⁾, 나아가 太陰證과 少陰證의 泄瀉가 모두 胃氣虛弱의 병리로부터 기인했음을 명시하였다⁸⁾.

2. 順逆 辨證

1) 腎受熱表熱病의 順逆 辨證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은 身熱의 증상을 공통으로 가지지만, 전자는 自汗不出하고, 후자는 自汗出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고 하였다⁹⁾. 더불어, 少陰人이 汗이 나지 않는 증상은 少陰人의 偏小之臟인 脾局이 약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하였다¹⁰⁾. 하지만, 陽明病 胃家實은 鬱狂證 증증에 속함에도 불구하고¹¹⁾, 病證이 심화되면 表寒을 떨치는 공력의 쇠갈로 인한 澌然微汗出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¹²⁾.

2) 胃受寒裏寒病의 順逆辨證

胃受寒裏寒病의 두 범주인 太陰證과 少陰證은 自利 증상을 공통적으로 가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太陰證 自利가 胃中 溫氣가 大腸의 냉기를 구축하는 것인데 비해 少陰證 自利는 大腸의 냉기가 胃中 溫氣를 疇박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차이를 명시하였다¹³⁾. 더불어 太陰證은 口不渴하고, 少陰證

은 口渴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¹⁴⁾, 口渴과 口不渴의 용어를 口中和, 口中不和의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⁵⁾. 나아가 少陰證은 太陰證과 달리 身痛이 나타난다고 하여 증상양상의 차이를 제시하였고¹⁶⁾, 太陰證을 溫胃而 降陰, 少陰證을 健脾而 降陰하여 치료하도록 한 처방 대강의 차이를 명시하여 ‘胃中溫氣의 손상’과 이에서 심화된 ‘脾局陽氣의 손상’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였다¹⁷⁾.

3. 輕重險危 辨證

表病의 鬱狂證과 裏病의 太陰證은 경증과 중증이 있고, 表病의 亡陽證과 裏病의 少陰證은 위증과 疇증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亡陽證과 少陰證의 경우에는 발병 초기부터 이미 疇증이 된다고 하며, 병의 위증함을 강조하였다¹⁸⁾.

1) 腎受熱表熱病 鬱狂證의 輕重險危 辨證

(1) 腎受熱表熱病 鬱狂證의 輕重

腎受熱表熱病 鬱狂證은 초, 중, 말증으로 구분된다¹⁹⁾. 太陽病 가운데 表證이 남아 있고 如狂의

6)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6 張仲景曰 病發於陰而反下之 因作痞 (후략)

7)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1 論曰 病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 (후략)

8)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28 論曰 張仲景所論 太陰病 少陰病 俱是少陰人 胃氣虛弱泄瀉之證 (후략)

9)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5 (전략) 蓋 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10)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20 (전략)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也 (후략)

11)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5 (전략)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후략)

12)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8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其病垂危則 澌然微汗出 潮熱也 澌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13) 『辛丑本』 『少陰人 泛論』 8-2 (전략) 太陰病下利 溫氣逐冷氣之下利也 少陰病下利 冷氣逼溫氣之下利也.

14) 『辛丑本』 『少陰人 泛論』 8-1 (전략)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渴不渴之間 相去遠甚 (후략)

15)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0 (전략) 凡腹痛自利 無口渴 口中和者 爲太陰病 腹痛自利 而有口渴 口中不和者 爲少陰病 (후략)

16)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0 (전략) 少陰病 有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表裏俱病 (중략) 太陰病 無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裏病 表不病 (후략)

17)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1 (전략)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18)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6 (전략) 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亡陽少陰病 自初痛 已爲險證 繼而爲危證也

19)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5 (전략)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후략)

증상이 발견되면, 鬱狂證 초증, 陽明病 胃家實로 大便秘燥하여 不更衣하면 鬱狂證 중증, 陽明病 가운데, 潮熱, 狂言, 微喘直視가 관찰되면 鬱狂證 말증으로 구별하였다. 특히, 太陽病과 陽明病의 차이는 惡寒과 不惡寒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였다²⁰⁾. 한편, 이제마는 鬱狂證을 논증하며, 장중경 『傷寒論』의 抵當湯證을 제시하며²¹⁾, 해당 처방증에 드러나는 少腹硬滿의 증상을 少陰人의 大腸怕寒으로 해석하였다²²⁾. 한편, 鬱狂證 말증의 潮熱, 狂言, 微喘直視의 증상은 鬱狂證 초증의 腎陽困熱로 인해 나타나는 其人如狂 증상의 심화된 양상으로 그 위증함을 강조하였다²³⁾.

(2) 腎受熱表熱病 亡陽證의 險危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亡陽證 역시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초증, 중증, 말증으로 구분하였다²⁴⁾. 亡陽證 초증은 太陽病의 發熱, 惡寒하면서 自汗出汗 증상으로, 亡陽證 중증은 惡寒이 아닌 惡熱이 있으면서 自汗出汗 증상으로, 亡陽證 말증은 發熱이 있으면서 汗出이 심한 증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제마는 장중경의 脾約病이 身熱, 自汗出, 不惡寒으로부터 출발하지만, 病證이 심화되면 發熱, 汗多, 惡寒으로 양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⁵⁾.

더불어 亡陽證의 경우, 땀뿐만 아니라 小便상태를 살펴, 小便이 清利하다면 脾約病으로 힘증에 속하고, 小便이 赤澁하다면 陽明病 發熱汗多로 위증에 속한다고 하였다²⁶⁾.

(3) 太陽病 厥陰證의 輕重險危

太陽病 厥陰證은 發熱, 惡寒으로 대표되는 表證과 脾局陽氣의 약화로 나타나는 汗出의 증상이 풀릴 듯 말 듯한 양상이 수일간 지속되어²⁷⁾ 정기와 사기가 모두 약화된 결과 나타나는 病證이다²⁸⁾. 한편, 太陽病 厥陰證의 처방으로 人參吳茱萸湯, 獨參八物湯과 함께²⁹⁾ 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등이 제시되어 있다³⁰⁾. 특히, 人參吳茱萸湯은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이하 『新定方』으로 약칭함)의 하나로, 인삼을 10돈 사용한 처방이다³¹⁾. 더불어, 이제마는 장중경의 當歸四逆湯證을 인용하여 太陽病 厥陰證의 특징적인 증상인 手足厥冷, 小腹痛, 囊縮 등을 제시하고 있다³²⁾.

2) 胃受寒裏寒病의 輕重險危 辨證

(1) 胃受寒裏寒病 太陰證의 輕重

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20) 『辛丑本』 『少陰人 泛論』
8-1 論曰 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一也而 惡寒不惡寒之間相去遠甚而 陽氣之進退強弱泰山之比丘陵也 (후략)

21)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7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22)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11 (전략)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후략)

23)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20 (전략) 張仲景 亦用大黃大承氣湯 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 其人澀然微汗出 胃中燥煩實 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晡發潮熱 不惡寒 狂言如見鬼狀之時 而用之則神效 若劇者 發則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用之於此 則脈弦者生 脈澀者死 蓋此方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者可用 而 其他則不可用也 (후략)

24)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5 (전략)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후략)

25)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8 脾約病 其始爲 身熱 汗自出 不惡寒而若其病垂危

26)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7 亡陽病證 非但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清利而自汗出 則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澁而自汗出 則陽明病 發熱汗多也 此 危證也 (후략)

27)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47 (전략) 乃少陰人 太陽傷風 惡寒發熱 汗自出之證 正邪相持日久 當解不解 而變爲此證也 此證 當謂之 太陽病 厥陰證也 (후략)

28) 『辛丑本』 『少陰人 泛論』
8-6 (전략) 惡寒汗出則 病必盡解也而 惡寒汗出而 其病半解半不解者 厥陰之漸也 (중략) 厥陰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후략)

29)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47 (전략) 此證 當謂之 太陽病 厥陰證也 (중략) 當用 參 黃湯 人參吳茱萸湯 獨參八物湯 (후략)

30)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48 凡少陰人 外感病六七日 不得汗解而死者 皆死於厥陰也 四五日 觀其病勢 用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三四五貼豫防 可也

31)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人參吳茱萸湯 人參 一兩 吳茱萸 生薑 各三錢 芍藥 當歸 官桂 各一錢

32)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39 張仲景曰 厥陰證 手足厥冷 小腹痛 煩滿 囊縮 脈微欲絕 宜當歸四逆湯

이제마는 少陰人 胃受寒裏寒病 太陰證의 病證모델로 가장 먼저 장중경의 理中湯證으로 요약되는 腹痛自利證을 제시하였다³³⁾. 본 病證에서 제시된 증상은 腹痛과 下利 이외에 食不下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³⁴⁾.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病證모델은 장중경의 瀉心湯證에 해당하는 心下痞證으로 穀不化的 증상이 특징적으로 발현 가능하다고 하였다³⁵⁾.

한편, 『醫學綱目』의 水結胸³⁶⁾과 無大熱을 호소하는 龔信的 寒實結胸³⁷⁾을 인용하며 少陰人 太陰證에 結胸證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少陰人의 結胸은 心下結硬이 아니라 心下痞滿의 종류라고 강조하였다³⁸⁾. 다음으로 인용된 太陰證의 病證모델은 장중경의 茵陳蒿湯證으로 이를 통해 少陰人의 黃疸 증상을 논증하고자 하였다³⁹⁾. 이상의 少陰人 結胸, 心下痞, 黃疸은 모두 心下가 痞滿한 것이라 하여 병리적 성격이 일치함을 강조하였다⁴⁰⁾.

한편, 食滯로 인한 泄瀉는 시일이 오래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며, 특히, 黃疸의 경우 食滯가 6일이나 지속되어 발생한 것으로 정기와 사기의 대립

이 고착화되는 正邪壅錮之病이라고 규정하였다⁴¹⁾.

다음으로 제시된 病證은 浮腫인데, 浮腫에 대해서는 病證모델을 泛論에서 일부 제시하고, 痞滿, 黃疸과 동일한 病證이며 다만 그 안에 輕重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⁴²⁾. 나아가 浮腫이 食消와 더불어 급하게 약을 써서 치료해야 하는 위급한 病證임을 제시하였다⁴³⁾.

太陰病 陰毒證은 腹痛, 下利가 풀릴 듯 말 듯한 양상이 수일간 지속되어⁴⁴⁾ 정기와 사기가 모두 약화된 결과 나타나는 病證이다. 太陰病 陰毒證의 특징적 증상으로 身痛⁴⁵⁾을 비롯하여 咽痛, 頭痛, 眼睛內痛 등의 다양한 통증 양상과 四肢厥冷이 제시되어 있다⁴⁶⁾. 또한 陰毒證의 처방으로 인삼을 10돈 사용하는 人蔘桂皮湯이 제시되어 있다⁴⁷⁾.

(2) 胃受寒裏寒病 少陰證의 險危

少陰人 胃受寒裏寒病 少陰證의 病證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제마는 가장 먼저 장중경의 少陰病

33)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2 腹滿時痛 吐利不渴者 爲太陰 宜四逆湯 理中湯. (후략)

34)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 張仲景曰 太陰之證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35)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7 下後 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雷鳴 心下痞硬 乾嘔 心煩 此乃結熱 乃胃中虛 客氣上逆故也 甘草瀉心湯 主之

36)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50 醫學綱目曰 但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 但頭汗 出 名曰 水結胸 小半夏湯主之

37)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51 龔信曰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38)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53 (전략) 醫學綱目醫鑑所論 水結胸寒實結胸證藥 俱是少陰人太陰病而 與張仲景茵陳蒿湯證相類 則此 病想必非眞結硬於心下而 卽痞滿於心下者也 (후략)

39)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47 張仲景曰 傷寒七八日 身黃如梔子色 小便不利 腹微滿 屬太陰 宜茵陳蒿湯 傷寒 但頭汗出 餘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身必發黃

40)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53 (전략) 醫學綱目醫鑑所論 水結胸寒實結胸證藥 俱是少陰人太陰病而 與張仲景茵陳蒿湯證相類 則此 病想必非眞結硬於心下而 卽痞滿於心下者也張仲景 瀉心湯證 傷寒下利心下痞硬 汗解後心下痞硬云者 亦 皆痞滿於心下 (후략)

41) 『辛丑本』 「少陰人 泛論」
8-6 (전략) 食滯一下而 病卽解者 太陰之輕病也 (중략) 太陰之輕病 不用藥而 亦自愈也 (중략) 食滯三日 不能 化下者 太陰之尤病也 太陰之尤病 已不可謂輕證而 用藥二三貼 亦自愈也 (중략) 食滯六日 不能化下者 太陽太陰之胃家實 黃疸病也 (중략) 太陰之 (중략) 黃 疸 正邪壅錮之病 不可不大用藥也

42)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67 (전략) 然 痞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후략)

43) 『辛丑本』 「少陰人 泛論」
8-12 嘗見 少陰人 飲食倍常 口味甚甘 不過一月 其人 浮腫而死 少陰人 食消 卽 浮腫之屬而 危證也 不可不 急治 當用 芎歸蘇麻理中湯

44) 『辛丑本』 「少陰人 泛論」
8-6 (전략) 腹痛下利則 病必盡解也而 腹痛下利而 其病 半解半不解者 陰毒之漸也 厥陰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후략)

45)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3 張仲景曰 傷寒陰毒之病 面青 身痛如被杖 五日可 治 七日不治

46)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4 李梴曰 (중략)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而臥 甚則 咽痛鄭聲 加以頭痛頭汗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唇指 甲青黑 身如被杖 又此證 面青白黑 四肢厥冷多睡

47)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人蔘陳皮湯
人蔘一兩 生薑 砂仁 陳皮 各一錢 棗二枚 本方 以炮乾 薑 易生薑 又加桂皮 一錢 則 尤有溫胃逐冷之力 以本 方 嘗治 未周年 小兒陰毒慢風 連服數日 病快愈矣 病愈後 更不服藥 再發不治.

제강을 인용한 뒤⁴⁸⁾, 四逆湯證으로 대표되는 少陰經病證의 腹痛自利證⁴⁹⁾, 麻黃附子細辛湯證과 麻黃附子甘草湯證으로 대표되는 『傷寒論』의 太陽少陰兩感證⁵⁰⁾, 나아가 장중경이 大承氣湯을 사용하도록 한 少陰病急下證인 下利靑水證⁵¹⁾을 인용하였다. 또한, 心煩을 넘어 躁證과 厥證이 함께 등장하는 臟厥證⁵²⁾과 陰盛隔陽證⁵³⁾을 이어 인용한 바 있다. 특히, 臟厥證과 陰盛隔陽證은 크게 볼 때 동일한 病證이라고 하였다⁵⁴⁾. 또한 成無己의 煩證은 心中에 鬱煩이 있는 것이고, 躁證은 외부에 熱躁가 있는 것이라고 한 내용을 인용하였다⁵⁵⁾. 나아가 躁證이 단순 心煩에 비해 매우 위중한 증상임을 밝히고⁵⁶⁾, 또 躁證이 발생하는 와중에 안정되는 시간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⁵⁷⁾.

- 48)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8 張仲景曰 少陰病 脈微細 但欲寐
- 49)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19 傷寒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 小便色白 宜四逆湯
- 50)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23 張仲景曰 少陰病 始得之 反發熱 脈沈者 麻黃附子細辛湯主之
7-25 少陰病 二三日 用麻黃附子甘草湯 微發之 以二三日 無證故 微發汗也 無證 謂無吐利厥證也
- 51)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1 張仲景曰 少陰病 自利純靑水 心下痛 口燥乾者 宜大承氣湯
- 52)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7 朱肱曰 躁無暫定而厥者 爲藏厥
- 53)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40 朱肱曰 病人 身冷 脈沈細而疾 煩躁而不飲水者 陰盛隔陽也 若飲水者非此證也 厥陰病 渴欲飲水者 小小與之 愈
- 54)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44 藏厥與陰盛隔陽病情 大同小異 (후략)
- 55)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41 成無己曰 煩 謂心中鬱煩也 躁 謂氣外熱躁也 (후략)
- 56)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39 (전략) 然 初證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早用藥 則猶可免死也 其病 至於躁無暫定而厥 則勢在極危也 豈不可憐乎 (후략)
- 57)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7-45 (전략) 觀少陰人病 危證者 當觀於躁之有定無定也 (후략)

IV. 考 察

1. 表裏 辨證

少陰人 病證은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구분된다. 腎受熱表熱病에 속하는 太陽病과 陽明病은 發熱을 공통증상으로 가지며, 胃受寒裏寒病에 속하는 太陰病과 少陰病은 自利를 공통증상으로 가진다. 發熱과 自利의 증상을 통하여 구분하고자 했던 少陰人 表裏病의 특징은 먼저 『甲午本』의 身熱과 腹寒으로부터 드러난다. 身熱과 腹寒의 개념은 『辛丑本』 편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즉, 身熱은 表熱病, 腹寒은 裏寒病의 개념으로 이어져 表裏의 구분에 있어 ‘身熱’과 ‘腹寒’으로 특징지어지는 寒熱 지표의 확인이 우선 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 때의 身熱과 腹寒의 변증은 단순한 發熱 여부 혹은 泄瀉 여부를 넘어, 환자의 병태가 熱象 혹은 寒象 가운데 어디에 치우쳐 있는 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表裏의 寒熱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大便을 고려할 수 있다. 즉, 裏病의 출발이 되는 心下痞가 胃弱으로부터 발생하는데, 胃弱의 의미는 太陰證과 少陰證 泄瀉의 원인이기도 한 胃氣虛弱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므로, 이는 大便秘燥를 야기하는 胃實과 명확히 구별된다. 따라서 이때의 胃實은 장중경의 胃家實이 아닌 胃弱의 반대, 즉 胃不弱으로 이해함이 적합하다. 결과적으로 表熱病의 大便양상은 무르지 않거나 泄瀉가 될 수 없고, 裏寒病의 大便양상은 단단하지 하거나 大便秘燥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表熱病과 裏寒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로 消化를 들 수 있다. 즉, 裏病의 병리로 제시된 胃弱의 상태로부터 裏寒病 환자의 소화 상태가 表熱病보다 상대적으로 불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少陰人이 表熱病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身熱’과 ‘腹寒’으로 표현되는 전체 병증양상의 寒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서 大便의 양상이 무르지 않거나, 泄瀉가 아니며, 더불어 消化 상태가 불량하지 않다면 腎受熱表熱病으로 변별하고,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면

Table 2. Diagnosis of Exterior-Interior Pattern in Soeumin's Diseases

表裏寒熱	寒熱	大便	消化
表熱病	身熱	不軟, 不泄瀉	良
裏寒病	腹寒	不硬, 不秘燥	不良

胃受寒裏寒病으로 변별할 수 있겠다<Table 2>.

2. 順逆 辨證

1) 腎受熱表熱病的 順逆 辨證

腎受熱表熱病은 크게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별하는 데, 이를 변별하는 단서는 땀의 유무에 있다. 따라서 땀이 나지 않는 鬱狂證은 少陰人의 偏小之臟인 脾局이 아직 강건한 順證에 해당하고, 땀이 나는 亡陽證은 脾局의 陽煖之氣가 쇠락한 상태인 逆證에 속한다. 따라서 少陰人의 大便이 무르지 않거나 大便硬, 大便秘燥의 상태를 보이는 腎受熱表熱病의 첫 번째 지표를 확인한 후, 땀의 유무를 확인하여 無汗일 때는 鬱狂證, 有汗일 때는 亡陽證으로 변별한다. 다만 鬱狂證의 한 양상에 해당하는 胃家實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澌然微汗出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鬱狂證 無汗의 범주는 澌然微汗出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2) 胃受寒裏寒病的 順逆 辨證

胃受寒裏寒病은 크게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구분된다. 제시된 치법의 차이로부터 드러나듯이, 少陰證은 太陰證과 달리 溫胃를 넘은 健脾가 필요한 病證이다. 따라서 脾局陽氣의 쇠락이 나타나지 않는 太陰證이 順證, 脾局陽氣의 쇠락이 나타나는 少陰證이 逆證이 된다.

順逆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먼저 大便 양상을 확인해야 한다. 곧, 少陰證 下利의 경우, 溫氣로 표현된 바 있는 脾局 陽煖之氣의 쇠락과 함께 大腸冷氣의 득세가 심각한 상황이기때, 太陰證에 비해 大便의 양상이 大便軟을 넘어, 大便泄, 自利靑水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脾元의 손상으로 발생한 口中不和의 상태가 少陰證에서 유발된다. 이와 더불어 身痛의 증상이 少陰證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역시 脾局陽氣 손상의 직접적 결과에 해당한다.

결국, 偏小之臟인 脾局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大便, 口乾, 身痛의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大便이 단순히 무른 상태를 넘어 泄瀉, 靑水의 양상을 나타내고, 口中不和하며, 身痛의 양상이 나타날 때는 逆證인 少陰證으로 변별하고, 반대의 경향을 보일 때는 順證인 太陰證으로 변별한다.

이상의 表熱病과 裏寒病의 順逆證 구분을 <Table 3>으로 요약하였다.

3. 輕重險危 辨證

1) 腎受熱表熱病的 輕重險危 辨證

(1) 腎受熱表熱病 鬱狂證의 輕重

鬱狂證의 범주 안에는 太陽病과 陽明病이 속하는데, 이를 구별하는 것은 惡寒의 유무에 있다. 즉, 惡寒이 남아 있다면 이는 太陽病에 속하여 鬱狂證

Table 3. Diagnosis of Favorable-Unfavorable Pattern in Soeumin's Diseases

表裏寒熱	順逆	病證	汗		
表熱病	順證	鬱狂證	無		
	逆證	亡陽證	有		
裏寒病	順證	太陰證	大便	口乾	身痛
		少陰證	平, 自利不甚	口中和	無
	逆證	太陰證	泄瀉, 自利靑水	口中不和	有
		少陰證			

초증에 해당하고, 惡寒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陽明病에 속하여 鬱狂證 중말증에 속한다.

오한의 여부와 함께 鬱狂證 중말증에 오면 大腸怕寒으로부터 심화된 大便秘燥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판단을 한 까닭은 첫째, 鬱狂證 증증에 해당하는 陽明病 胃家實에 不更衣가 제시되어 있는 것과 직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腸怕寒의 병리적 상태가 심화하여 나타나는 大便秘, 大便秘燥의 상태가 鬱狂證 초증과의 또다른 변별점이 된다.

鬱狂證 가운데 증증과 말증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증의 증상으로 제시되었던 潮熱, 狂言, 微喘直視의 증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제반 증상은 腎陽困熱로 인한 其人如狂 증상의 심화로 보이며, 이는 升陽益氣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鬱縮膀胱’하게 되는 鬱狂證 병리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熱證 양상의 증상으로 鬱狂證 말증을 변별하는 또다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少陰人 鬱狂證 환자가 惡寒을 호소한다면 太陽病에 속하므로 鬱狂證 초증으로, 大便秘 무르지 않음을 넘어 大便秘硬하거나 大便秘燥하면서 惡寒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鬱狂證 중말증으로 변별한다. 나아가, 潮熱, 狂言, 微喘直視의 증상이 보일 때는 熱證의 심화로 보고 鬱狂證 말증으로 변별한다.

이상의 鬱狂證 초중말증을 輕重의 의미로 파악한다면, 鬱狂證 전체가 自汗不出하여 脾不弱하므로 경증에 속하긴 하지만, ‘陽氣不能上升’·‘鬱縮膀胱’의 병리로 발생하는 ‘其人如狂’이 극도로 심화된 제반 熱證을 드러내는 鬱狂證 말증은 따로 구분하여 증증으로 볼 만하다.

(2) 腎受熱表熱病 亡陽證의 險危

亡陽證의 초중말증을 변별하기 위해 鬱狂證과 같이 太陽病과 陽明病이 惡寒과 不惡寒으로 구별된다는 점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發熱과 汗出의 증상을 바탕으로 亡陽證에 귀속된 脾約病의 증상이 심화되면 陽煖之氣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惡寒의 증상이 다시 발현하므로, 惡寒이 太陽病에 해당하는 亡陽證 초증에만 국한될 수 없다.

그 결과,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亡陽證의 초증, 증증, 말증 가운데 惡寒의 유무는 亡陽證 증증을 亡陽證 초증, 말증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앞서 鬱狂證의 중말증은 鬱狂證의 초증에 비해 大便秘燥의 양상이 뚜렷해진다고 논증하였는데, 이는 亡陽證 중말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大腸怕寒으로 인한 少腹硬滿과 大便秘燥의 양상이 陽明病의 기준 하에 설정되어 있고, 亡陽證의 중말증 역시 傷寒論 陽明病을 그 모델로 하는 病證이기 때문이다.

亡陽證 초증과 말증을 구별하는 것은 自汗出과 汗多로 표현된 汗出의 정도를 가지고 먼저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다. 하지만 亡陽證에서는 땀뿐만 아니라 小便의 상태를 봄이 마땅하다. 곧, 脾元의 손상이 위급하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小便이 清利하지 않고 赤澁해지는 양태를 드러낸다.

결국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亡陽證의 전체 하에서, 惡寒이 있고 大便秘燥가 뚜렷하지 않으며 小便이 清利하면 亡陽證 초증, 惡寒이 없으면 大便秘, 大便秘燥하며 小便이 清利하면 亡陽證 증증, 惡寒이 있고 大便秘燥하며 小便이 赤澁하면 亡陽證 말증으로 변별한다.

少陰人의 亡陽證 초중말증을 다시 險危의 정도로 구분한다면, 小便赤澁이 나타나지 않는 亡陽證 증증까지를 輕증으로, 小便赤澁이 나타나는 亡陽證 말증을 危증으로 볼 만하다.

(3) 太陽病 厥陰證의 輕重險危

太陽病 厥陰證은 少陰人 太陽病의 變證이므로 大便의 양상은 腎受熱表熱病 전체의 大便 양상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寒熱의 양상에 있어 惡寒, 發熱과 함께 手足厥冷과 裏熱病의 특징일 수 있는 小腹絞痛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여기서의 小腹絞痛은 위장관에서 기인한 裏寒病의 복통과는 구별이 되는 통증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少陰人 亡陽證 환자가 惡寒을 보이는 초증의 상태로 의심되지만, 여기에 手足厥冷의 특이적 寒熱 양상을 드러낼 때 太陽病 厥陰證으로 변별한다.

또한 鬱狂證 처방의 하나인 八物君子湯, 獨麥八物湯과 亡陽證 처방의 하나인 黃芪桂枝湯, 그리고 人蔘이 1냥 사용되고 있는 人蔘吳茱萸湯으로 厥陰證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첫째, 鬱狂證의 輕重 개념과 亡陽證의 險危 개념이 모두 적용 가능하며, 둘째, 경증에서 중증, 험증에서 말증의 범주가 경우에 따라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胃受寒裏寒病의 輕重險危 辨證

(1) 胃受寒裏寒病 太陰證의 輕重

제시된 腹痛自利, 結胸, 心下痞, 黃疸이 모두 心下痞滿이며, 痞滿, 黃疸, 浮腫이 同出一證이라는 점에서 少陰人 太陰證은 心下痞滿의 증상으로 공통점이 발생한다. 여기에 黃疸이 正邪壅錮之病으로 食滯가 수일동안 지속된 결과 발생한 病證이라는 측면에서 腹痛自利, 結胸과는 대비된다. 더불어 浮腫은 급하게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病證이라는 면에서 또한 여타의 病證과 구별된다. 따라서 少陰人 胃受寒裏寒病의 순증인 太陰證 환자가 痞滿 증상을 주로 호소하거나, 여기에 黃疸을 동반한다면 경증으로 변별하고, 浮腫을 나타낸다면 중증으로 변별할 수 있다.

한편, 太陰證의 變證 가운데 하나인 太陰病 陰毒證은 太陰病의 變證이므로 大便是 胃受寒裏寒病 전체의 大便 양상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寒熱의 양상에 있어 手足厥冷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表病의 특징적 징후인 통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少陰人 太陰證 환자가 腹痛, 自利를 넘어 身痛을 강하게 호소하는 비소화기 관련 太陰證으로 보일 때, 寒熱의 양상이 手足厥冷으로 드러날 때 太陰病 陰毒證으로 변별한다. 특히, 인삼 10돈을 사용한 人蔘陳皮湯의 특징을 고려할 때, 太陰病 陰毒證은 마땅히 太陰證의 중증으로 봄이 마땅하다.

(2) 胃受寒裏寒病 少陰證의 險危

少陰證의 險危를 따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心煩躁의 정도를 지표로 삼아 파악해야 한다. 즉, 心中에만 있어 환자만이 알 수 있는 心煩의 경우는 少陰人 少陰證의 험증으로 보고, 환자의 증상이 외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心煩躁의 경우는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少陰證의 위증으로 볼 만 하다. 다만, 심번조가 있는 외중에 안정되는 시간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위증의 정도가 조금

Table 4. Diagnosis of Mild-Severe-Dangerous-Urgent Pattern in Soeumin's Diseases

病證	輕重險危(初中末)	寒熱	大便	潮熱, 狂言, 微喘直視
鬱狂證	輕證(初)	惡寒	平	無
	輕證(中)		秘燥	
	重證(末)	不惡寒		有
亡陽證	險證(初)	惡寒		平
	險證(中)	不惡寒	秘燥	
	危證(末)	惡寒		赤澀
痞滿, 黃疸, 浮腫				
太陰證	輕證	痞滿		
	重證	黃疸 浮腫		
少陰證	險證	心煩		
	危證	心煩躁 有定		
		心煩躁 無定		

덜한 것으로 다시 층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藏厥證과 陰盛隔陽證은 모두 陰盛으로 인해 虛陽이 치성함을 공통된 특징으로 가진다. 즉 일반적인 少陰證을 가지며 ‘上熱下寒’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 자체가 ‘心煩躁’를 설명하는 병리적 기전이 되면서, 극심한 少陰證 危證을 변별하는 중요한 요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表熱病과 裏寒病의 輕重險危 辨證 결과를 도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Figure 1>은 고찰을 통해 논증한 少陰人 病證 진단의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총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사상체질 病證 진단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

및 치료경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개발의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임상에서의 진료 과정에 실질적 진료지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少陰人 裏病의 輕重險危 구분이 黃疸의 經重 구분과 같이 각 병증 내에서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용약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각 病證을 호소하는 환자의 現證 이전에 존재하는 素證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문제를 배제한 점이다. 셋째, 각 病證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處方用藥의 조건은 그 내용에서 제외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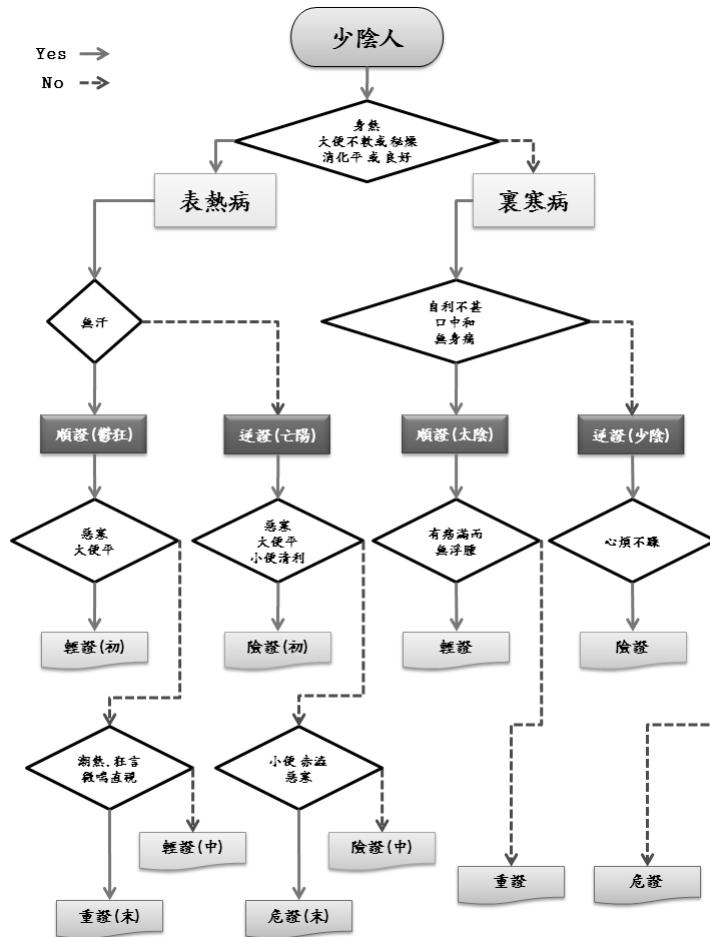


Figure 1. Diagnosis algorithm for Soeumin Constitutional symptomatology

었다. 따라서 좀더 실제적인 사상체질 辨證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향후 素證과 구체적인 처방용약 조건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少陰人 雜病을 기존 소음인 병증 내로 범주화하고 用藥의 원칙을 정하는 귀납적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V. 感謝의 글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 학년도 우수학술장학금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VI. 結 論

1. 少陰人 病證 진단의 첫번째 단계는 表裏 辨證으로, 表病은 熱證, 裏病은 寒證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를 위해 大便과 消化상태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2. 少陰人 病證 진단의 두 번째 단계는 順逆 辨證으로, 偏小之臟인 脾局의 손상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表熱病의 順證인 鬱狂證과 逆證인 亡陽證의 辨證은 汗出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 2) 裏寒病의 順證인 太陰證과 逆證인 少陰證의 辨證을 위해서는 大便양상, 口乾여부, 身體痛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3. 少陰人 病證 진단의 세 번째 단계는 輕重險危 辨證이다.
 - 1) 鬱狂證은 惡寒유무, 大便상태, 기타 潮熱, 狂言, 微喘直視 등의 지표로 초, 중, 말을 辨證하고, 초, 중증은 경증으로, 말증은 중증으로 구분한다.
 - 2) 亡陽證은 惡寒유무, 大便상태, 小便상태등의 지표로 초, 중, 말을 辨證하고, 초, 중증은 險證으로, 말증은 危證으로 변별한다.
 - 3) 太陰證은 痞滿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증상으로, 黃疸, 浮腫으로 갈수록 중증이며 이에 痞滿과 黃疸을 경증으로, 浮腫을 중증으로 구분한다.

- 4) 少陰證은 心煩躁를 포함한 陰盛隔陽의 강도를 지표로 辨證하는데, 心煩만 나타나면 險證이고, 躁證까지 나타나면 危證이다.
4. 향후 素證과 現證과의 관계, 病證과 處方用藥 조건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필요하다.

Ⅶ. 參考文獻

1. Joo CH, Kim KY. A study on the diseases and pharmacy of the Soeumin's Sinsooyul-Pyoyul-Byung theory. J Sasang Constitut Med. 1997;9(2):67-94.(Korean)
2. Lee EJ, Song IB. A study on exterior diseases and interior diseases in parts of Soeumin and Soyangin.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43-56.(Korean)
3.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f Kyung Hee University. The manual of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ubtitle: reference book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Hanmibook. 2010.(Korean)
4.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f Kyung Hee University. The manual of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Hanmibook. 2010.(Korean)
5.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colleges of oriental med. in Korea(compilation).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 Seoul: Jipmoondang. 2008.(Korean)